

이 마음을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린 늙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고, 굶어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 성전스님 -

(주)사각과 ‘AI 헬스 코디네이터 솔루션’ 개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4일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인 (주)사각과 AI 헬스 코디네이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상·검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AI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협력하여,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수검자 중심의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실제 의료 서비스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백용해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하는 AI 헬스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검자에게는 차별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핏투어스와 ‘해외 의료관광·건강증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20일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인 (주)핏투어스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건강증진센터 중심의 검진·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핏투어스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환자 홍보·예약·관리를 담당한다. 양 기관은 의료관광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과 플랫폼 기반 환자 편의 서비스, 유치 실적에 따른 수익 배분 등에서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노동조합의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소방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진료 및 건강증진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티모르 보건부 대표단, 국제 보건 연수 일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방문

동티모르 보건부 고위 관리자 대표단이 지난 11월 20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주관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했다.

동티모르 국립공중보건연구원(INSPTL)의 과학·기술총괄국장 Nevio Da Costa Sarmento 외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영상의학과 MRI 실, ZAP-X 아시아 방사선 수술센터 일산, 양·한방 외래 진료과, 건강증진센터, 긴급치료병상 등 첨단 의료시설과 시스템을 둘러보았다.



소방화재 합동 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8일 52병동 및 61병동 간호사와 교직원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화재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52병동 처치실에서 뜸 치료를 위해 불을 붙이다 알코올 램프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61병동은 52병동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 상황을 가정하여, 연기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속에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하며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제3차 별이음 사별가족모임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지난 10월 30일 ‘제3차 별이음 사별가족모임’을 개최해 사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전문 아로마 치료사와 함께 향기를 통한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소행연 수간호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마음의 쉼과 위로를 전하는 안식처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사별가족모임을 개최해 심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해시 의료 취약지역 의료 봉사활동 실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1월 1일 강원도 동해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 C&E 동해공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약 150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검사, 진료 상담, 침 치료, 맞춤형 운동 치료, 약 처방 등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가정방문 의료지원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다시 찾아오신 분들이 건강한 모습이어서 마음이 좋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고맙다.”고 말했다.

